



중국의 기후변화정책 추진 방향

12차 5개년 계획으로 환경정책 구체화

칸쿰 회의 후 개최된 兩會를 통하여 녹색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지정

2009년 코펜하겐 회의부터 이미 국제사회를 향하여 책임 있는 탄소저감 정책을 약속한 중국정부는 금년 3월에 개최한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전국정치협상회의)를 통하여 탄소배출 저감목표 및 이를 위한 신규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향후 5년간 집중투자가 진행될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시키는 등 녹색산업 장려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14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한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 - 강요(綱要)’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 방안과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강요의 주요 키워드 가운데 환경보호 및 저탄소 경제건설은 중국 정부가 12.5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이다. 앞으로 5년간 중국 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본 강요를 통해 나타난 중국정부의 ‘그린대국’을 향한 저탄소 녹색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장면



출처 : 신화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목표제시

중국은 금번 양회를 통해 기존에 표어에 그쳤던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해 목표를 제시하였다. 상품 생산 시 물소비량 30% 절감, 비화석 에너지의 1차 에너지 소비비중 11.4%까지 축소,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16% 절감, GDP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17% 감축의 목표를 세웠다. 또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총량 제한을 실시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및 이산화황(SO₂) 배출 8% 감축, 암모니아질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0% 저감 목표를 세웠다. 또한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감축 규제 메카니즘 구축을 위해서 관련법규와 표준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었다.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음용수 수질 개선과 관리 방안을 엄격히 시행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화력발전, 철강, 금속, 화공, 건축자재 업계에 대한 이산화황, 암모니아질소 배출 제한 강화, 차량 배기가스 배출 제한을 명문화 하였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공기 품질등급 2급 이상인 도시의 비중을 전체 地級 이상 도시의 80%까지 확대하고 도시 우수처리율을 85%까지 높이고 생활쓰레기 무회 처리비율을 8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중금속오염 처리 및 회복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오염토양과 오염수질 회복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 밖에 환경세 마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사회에 목소리 키우는 한편 적극적 내부 대응을 시작한 중국

2010년 12월 칸쿤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발리로드맵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았다고 중대 의미를 부여한 중국은, 개발도상국과 연합하여 선진국들을 향하여 2012년 포스트교토체제 이후 저감목표 제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외교부 황후이강(黃惠康) 기후변화협상 특별대표단장은 4월초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도 공식 발표를 통해 각 국가가 진지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2012년 이후의 절감목표에 대하여 협상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국제무대에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본 대지진으로 중국에서는 원전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민대회 기간 동안 순환경제발전 모델의 확대와 저탄소 도시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건설강화, ESCO사업추진, 각종 오염물질 관리 방안 강화를 직접 언급하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앞으로 1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환경오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추진하고 각종 녹색규제를 신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진출기업은 이점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더불어 이제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던 중국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중국판 그린오션(Green Ocean) 시장에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IK**

전국인민대표대회 참석한 원자바오 총리



출처 : 인민망